

하이데거의 Dwelling의 의미에 관한 연구

- C. Norberg-Schulz와 M. Cacciari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meaning of Heidegger's Dwelling

-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s of C. Norberg-Schulz and M. Cacciari -

김 경 호*

Kim, Kyung-Ho

Abstract

Dwelling refers to a way of being that has to do with a cautious and guarded attitude. What has to be nurtured and preserved is the dweller's relationship with the fourfold of heaven and earth, divinities and mortals. This leads to the fourfold definition that mortals dwell insofar as they save the earth, receive heaven as heaven, await the divinities as divinities, and are capable of death as death. Heidegger sees the thing as the concrescence of what he calls the fourfold of earth, sky, mortals, and divinities. For Heidegger, true being means to be open to the fourfold, to tend the fourfold in its essence. C. Norberg-Schulz takes as his starting point Heidegger's notion of the thing as that in which the fourfold is assembled. The built space must be organized in a way that concrete places are created, places that are characterized by a specific genius loci. This idea refers to life in the warm seclusion of a traditional community, but is much less applicable to the functional networks and relationships that determine life in a modern society. Cacciari thinks that what is worth questioning is in particular the condition of homelessness perceived by Heidegger, 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is situation for architectu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aning of dwelling through Heidegger's concept of dwelling and the interpretations of C. Norberg-Schulz and M. Cacciari about it.

키워드 : 하이데거, 거주함, 건축함

Keywords : M. Heidegger, dwelling, building

I. 서론

근대는 흔히 고향상실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고향상실은 근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생산기술의 발달과 사회생활에서의 관료적 조직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성, 익명성의 원칙과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를 추상화시키는, 계몽이래로 진행되어온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근대는 사람들을 가족관계, 지역사회에 의해 부과되어온 전통이라는 제약 조건이나 질곡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으며,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은 가능성이나 선택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으나,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던 확실성과 의미의 상실이라는 삶에 대한 전통적 근거의 틀이 없어지는 대가가 수반되었다.

본 논문은 고향상실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상황에 대해 하이데거가 밝힌 거주함에 대한 본질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두 건축가의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건축과 거주함의 진정한 의미와 관련성을 고찰하여 보고자하였다.

*정희원,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II. 하이데거의 Dwelling

하이데거는 1951년 다름슈타트에서 행한 그의 강연 "Building, Dwelling, Thinking"에서 거주함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면서 열려있음으로서의 인간존재의 근본특성이 바로 거주함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거주함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거처에 머물고 숙박하면서 가사 일을 돌보거나 직업에 종사하는 혹은 누구를 만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하나의 일상적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주택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함이 열려있음으로서의 인간존재의 근본특성이라고 말해질 때, 여기서의 거주함이란 그것의 일상적 의미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그 안에 은닉된 그것의 망각된 본질적 의미가 말하고 있다. 사방세계¹⁾의 한 방역으로서의 이러한 땅에 대한 인간의 참된 관계맺음은, 인간이 죽을 자로서 이 땅

1) 여기에서 사방세계란 하이데거의 용어인 the fourfold를 지칭하며, 하늘과 땅, 신성과 죽을 자로서의 인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신상회의 명칭을 따랐다. 신상회, 사방세계 안에 거주함: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 한국하이데거학회, 한국하이데거학회 2005 가을학회 참조

위에 거주하기 위해 삶의 자리를 지어 나가는 그의 행위 즉 짓기(건축함)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거주함이 짓기 혹은 건축함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때, 이 양자는 마치 목적과 수단의 관계 속에 서로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양자를 두 개의 분리된 활동으로 간주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올바르게 표상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목적-수단의 도식을 통해 거주함과 건축함의 본질적인 관련을 은밀히 왜곡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²⁾

인간의 참된 관계맺음은,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신적인 것들 앞에서 죽을 자들과 더불어 시원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지어 나가는 그의 행위, 즉 짓기(Bauen)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우리가 사방세계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그것을 참답게 보존하면서 사물들 곁에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오로지 우리가 짓기의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지 않고 구현해 나갈 때 일어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거주함은 사방을 사물들 안으로 참답게 보존하는 한에서, 이러한 참다운 보존으로서의 일종의 짓기”인 셈이다. 따라서 죽을 자들이 사물들 곁에 체류하며 거주한다는 것은 곧, 사물이 자기 안에 세계의 네 방역들을 가깝게 모아들이는 그런 사물로서 현성하도록, 즉 “사물이 세계를 사물화하도록” 각각의 사물들을 그것들의 고유한 본질에로 자유롭게 풀어놓는 가운데 그것들을 소중히 돌보고 보호하며 건립하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에만 사물은 사방세계를 자기 안에 참답게 간직할 수 있으며, 또 이와 동시에 사방세계는 사물 안에 결집된 채 참답게 보존될 수 있다. 사방세계의 네 방역들이 사물 안으로 결집될 때, 사물은 이런 넷의 하나로 포개짐으로부터 자신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넷은 사물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 만나게 되고 사물은 넷의 본질을 자기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은 이렇게 자기 안에 사방을 결집하며 모아들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 사물은 사방에게 그것이 머무를 하나의 터전을, 즉 존재의 열린 자리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모아들인다. 이러한 터전으로부터 비로소 인간의 체류를 위한 근원적 공간이 개시되고 마련된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장소인 그런 것만이” 사방이 머무를 하나의 터전을 허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터전으로부터 근원적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말하길, 사물은 단순히 지각 가능한 물질적 덩어리로 존재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 자신의 고유한 본질에 있어서 사방을 결집하는 장소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물은 자기 안에 사방이 결집되는 장소를 수립하고 사방이 머무르는 터전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거주할 근원적 공간을 열어 놓는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개시되는 공간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기하학적으로 추상화된 물리적 공간이 산출된다. 사방을 모아들이는 장소로서의 사물은 자기 안에 사방이 머무르는 터전을 “허용하면서, 근원적으로

개시되는 공간 안에 사방을 “설립한다.”고 하였다.³⁾

거주함 자체가 항상 사물들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보존함으로서의 거주함은 죽을 자들이 사물안에 이러한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과 설립함으로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서로 공속한다. 이렇게 이중적 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장소로서의 사물은 사방세계를 수호하는 “일종의 집”이며, 이런 양식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은 사람들이 체류할 거처를 제공한다. 인간은 죽을 자들로서 이러한 사물들 곁에 체류하며 사방세계 안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사물들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짓는다”는 것은, 즉 그것이 자생적 사물들을 돌보거나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든, 혹은 인위적 사물들을 건립하거나 제작한다는 의미에서든,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신적인 것 앞에서 죽을 자들과 더불어 인간답게 거주하기 위한 시원적인 삶의 장소를 열어 밝혀 나가는 근원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렇게 거주할 공간을 열어 놓는 행위로서의 짓기는 거주함에서 비롯된 하나의 파생적 방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주함이 설립되고 실현되는 본질적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짓기의 본질은 거주하게 함”에 있다. 이렇게 사방세계를 사물들 속으로 간직해 들어가면서 인간이 거주할 삶의 자리를 지어 나가는 본질적 수행방식으로서의 짓기를 통해서 인간은 “사방의 말 걸어옴”에 응답하는 가운데 인간이 인간답게 거주할 근원적 장소에로 귀환할 수 있게 된다.⁴⁾고 본 것이다.

III. Norberg-Schulz의 해석과 문제점

Norberg-Schulz는 하이데거의 사물(thing)의 관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사물은 하늘과 땅, 신과 사람이 하나로 결집된 것으로서의 우리가 보살피고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Schulz는 사물은 세 가지의 성격을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사물은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구체적이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Schulz는 하이데거의 은유를 그의 “구상적” 건축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Schulz는 하이데거의 관점으로부터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할 때 거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의 경험은 아키텍토닉한 계획을 통해 어떤 특정 장소가 사람들에게 정위(orientation)와 일체감(identification)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건축공간이 특정한 장소의 정신(genius loci)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장소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의 임무는 이러한 장소의 정신을 드러냄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그림 1)

그러나 하이데거가 Black Forest의 농촌주택을 언급한 것은 결코 우리가 그러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거나 그곳으

2) 신상희, 사방세계 안에 거주함: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 한국하이데거학회, 한국하이데거학회 2005 가을학회 p2

3) 신상희, 사방세계 안에 거주함: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 한국하이데거학회, 한국하이데거학회 2005 가을학회 p4

4) 신상희, 사방세계 안에 거주함: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 한국하이데거학회, 한국하이데거학회 2005 가을학회, pp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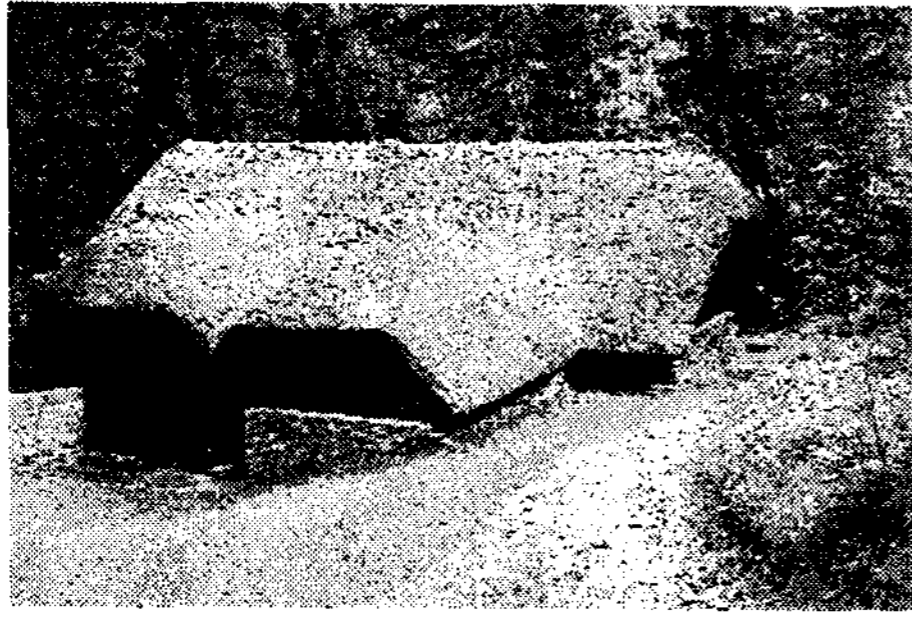


그림 1. 주택 (출처: 참고문헌 3, p11)

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함의 하나의 보기로서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오늘날의 불안정한 시기에 거주함의 상황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주택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 그러나 주택부족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거주함의 진짜 위기는 단순히 주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로서의 우리가 거주함의 본성을 항상 새롭게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항상 거주함을 배워야한다.”⁶⁾

Schulz는 네 가지의 거주양식(자연적 거주, 집단적 거주, 공공적 주거, 사적 주거)을 구별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거주양식들은 중심, 길, 영역이라는 공간적 관계의 작용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Schulz가 이러한 생각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한 보기들은 분명히 감동적이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중해의 전통과 고전의 전통에 대한 확실한 선호를 가지고 하이데거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도구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그림 2, 3, 4)



그림 2. 4가지 거주함의 양식: Bamberg 1493 (출처: 참고문헌 3, p14)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공간을 추상적인 이념으로 생각하는 기능주의적 성격의 비-구상적 건축특성을 구상적 건축 이미지와 적극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삶인 것으로 보인다. “거주함이 이루어지면, 장소에 소속함과 참여함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완성된다.”⁷⁾

거주함이 의미하는 범주는 완전함, 속해 있음, 뿌리내려 있음, 사람과 장소, 사람과 사람간의 유기적인 결속 등이다. 구상적 건축은 이들 모두를 포섭한다고 주장하면서 Schulz는 명백하게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고향상실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건축가들이 기능주의 건축이 건축을 추상화하는 작용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진정한 거주함의 가능성이 다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⁸⁾ “건축물은 사람들이 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은 그가 사물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해한 것을 건축언어의 수단을 통해 작용할 수 있을 때 시적으로 진실되게 거주하게 된다.”⁹⁾ 따라서 Schulz에게 있어서 “고향상실”은 현대인의



그림 3. 그림으로서의 중심: S. Maria (출처: 참고문헌 3,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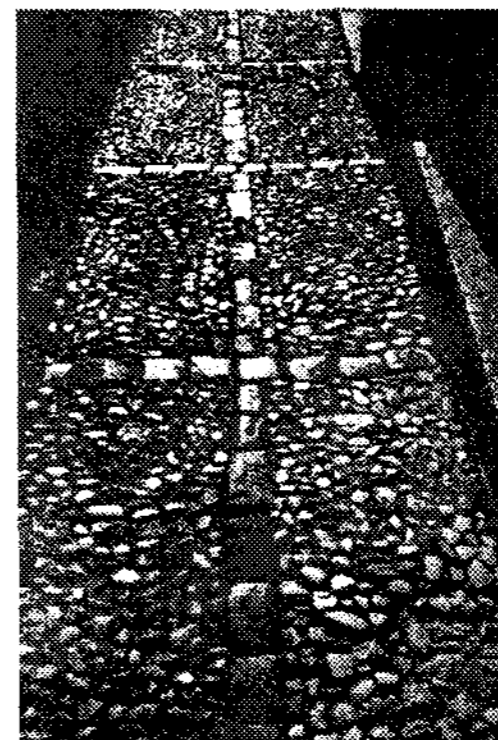


그림 4. 길: in Spoleto (출처: 참고문헌 3, p21)

5)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David Farrell Krell ed,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p362

6)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David Farrell Krell ed,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p363

7) Christian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5 p7

8) Hilde Heynen, Architecture and Modernity: a critique, MIT, 2001, p19

근본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과 주거의 관계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IV. M. Cacciari의 해석과 문제점

Cacciari는 하이데거의 에세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하이데거가 바라보고 있는 고향상실의 상황과 건축에서의 가능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Cacciari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시적 거주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근대문화의 발달은 이 세상을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의 삶의 특성을 “비-거주함”으로 보았다.

따라서 Cacciari는 이 문제를 Schulz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건축언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도구적 방식으로는 하이데거가 “건축함, 주거함, 사유함”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주함의 의미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 Cacciari는 하이데거의 글은 바로 “거주함-건축함-거주함”이라는 순환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

사람과 세상의 관계맺음이 축소되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망각”의 결과 시적인 거주함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적인 건축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주거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¹⁾ 건축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부재의 기호를 통해 시적인 거주함의 불가능을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만이 진정한 건축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Mies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그림 5) “우리는 거주함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 우리는 1920-1921년의 유리 마천루계획으로부터 뉴욕의 Seagram Building까지의 미스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거주함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¹²⁾고 함으로써 건축과 거주함의 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V. 결 론

하이데거는 현상학자로서 20세기 서구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이라는 글을 통해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이데거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맺음이란 사방세계를 보살피고 보전하면서, 평화롭게 놓아두는 것으로서의 자세이며, 이것이 거주함의 본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거주함의

9) Christian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5 p30

10) Hilde Heynen, *Architecture and Modernity: a critique*, MIT, 2001 pp19-20

11) Hilde Heynen, *Architecture and Modernity: a critique*, MIT, 2001 p20

12) M. Cacciari, *Eupalinos or Architecture*, Hilde Heynen, *Architecture and Modernity: a critique*, MIT, 2001, p2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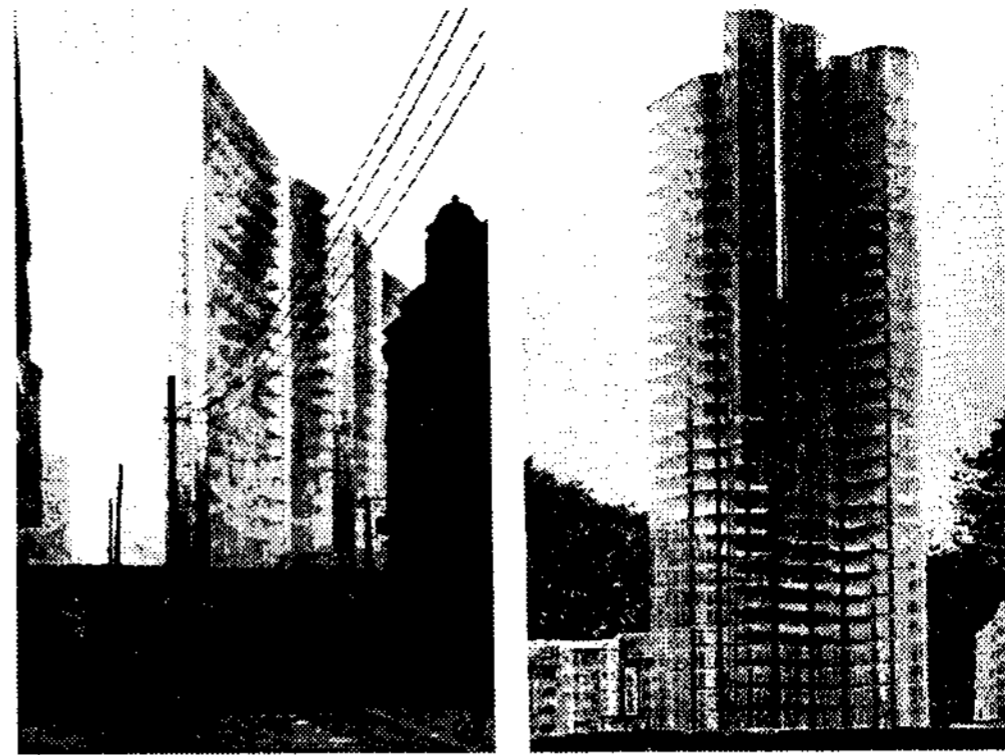


그림 5. Mies의 Glass Tower (1919)와 Concrete Office Building (1922)

본질적 의미는 사방세계의 네 방역들을 자기 안에 모아들이며 사물화(thingness)하는 그런 사물들 곁에 체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Norberg-Schulz는 하이데거의 사물(thing)의 관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물은 하늘과 땅, 신과 사람이 하나로 결집된 것으로서의 우리가 보살피고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Schulz가 이러한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한 보기들은 분명히 감동적이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중해의 전통과 고전의 전통에 대한 확실한 선호를 가지고 하이데거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도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Cacciari는 하이데거의 에세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하이데거가 바라보고 있는 고향상실의 상황과 건축에서의 가능한 결과에 주목하면서 사람과 세상의 관계맺음이 축소되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망각”의 결과 시적인 거주함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적인 건축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주거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는 하이데거의 글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점에 연유한 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근대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향상실이라는 현대인의 삶의 조건이 맞다면, 거주함을 디자인하고, 거주함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건축의 입장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가 거주함의 본성을 항상 새롭게 추구면서, 즉 항상 거주함을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David Farrell Krell ed,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2. Hilde Heynen, *Architecture and Modernity: a critique*, MIT, 2001.
3. Christian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5.
4. Jonathan A. Hale,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John Wiley & Sons Ltd, 2000.
5. K. Michae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1998.
6. 신상희, 사방세계 안에 거주함: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 한국하이데거학회, 한국하이데거학회 2005 가을학회.